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문제

- 국민생활 전부를 파괴하는 TPP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

현재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우리와 같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의 참가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다. TPP는 사실상 한미FTA와 같은 수준의 협정이다.

일본에서도 농업 쪽에서 많은 반대를 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식으로 총리에게 반대요청서를 보내고 있고, 의회에서는 반대하나 신중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는 여야로 분명히 나뉘어 있지만 일본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반대하는 의원들은 반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움직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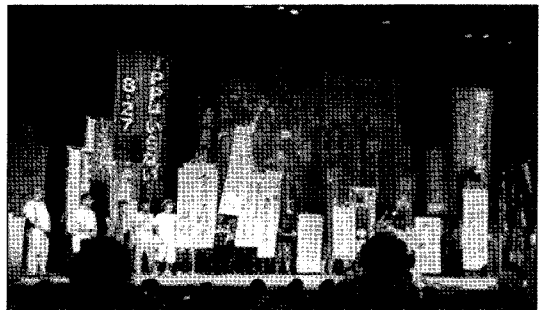
출범한지 얼마 안된 노다 수상은 9월 12일 경단련 회장, 경제동우회 대표간사 등과의 회담에서 「미국 측은 TPP를 매우 강조하고 있으므로 TPP도 동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TPP교섭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수상의 말대로 TPP의 본질은 「미국 말대로」로 모든 품목의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이다. 그 앞에는 일본 농업이 붕괴하는 위험성만이 아니고, 식의 안전성 붕괴위기, 국민보험을 기초로 하는 의료의 붕괴 등 국민생활 모두가 “파괴” 될 것이다.

식의 안전성에 대한 중대한 위기

「예외 없는 무역자유화」를 진행하는 TPP에 만약 일본이 참여한다면 농업분야에 엄청난 타격이 된다. 농립수산성의 발표대로 쌀 자급률은 10%, 보리는 1%, 콩은 29%가 낮아질 것이다. 전분원료작물이나 가공용 토마토 등은 100% 외국산으로 대체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식품의 수입량은 2009년 3,060만 5백톤에서 4,688만 7천톤으로, 1.53배가 증가하

게 된다. 수입식품이 이정도 급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외 없는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TPP는 관세철폐를 압박하는데 그치지 않고, 식품안전기준과 같은 비관세장벽도 「무역자유화의 장애물」로 보고 있다.



▲ TPP반대 집회 모습

현재, 미국에서 사용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은 약 3,000품목으로 알려져 있다. 그에 비해 일본에서는 지정첨가물이 413품목, 기존첨가물 419품목으로, 미국과 비교하면 2,000품목이상 식품첨가물수가 적은 실정이다.

미국은 원래 「일본의 식품첨가물 규제는 몇몇 미국식품, 특히 가공식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

다.»고 하고 있으며, 식품첨가물 규제에 대한 완화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TPP에 참가하면 미국은 절호의 기회를 잡는 것이고, 일본 첨가물의 기준이 미국 수준에 맞출 수 있는 것이 확실하다.

포스트하베스트(postharvest)도 자유롭게

수확 후 처리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발암성이 의심되는 포스트하베스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에서는 감귤류에 사용하는 OPP와 TBZ, OPP나트륨, 지패널 그리고 감귤류와 바나나에 사용되고 있는 이마자리루의 5개 품목의 포스트하베스트를 식품 첨가물에서 빼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식품첨가물 표시에서 빠져 존재를 알 수 없게 된다. 사용량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잔류농약기준은 포스트하베스트 농약사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 농약잔류수준이 높은 것이다.

이 Codex위원회의 잔류농약기준이 도입되면, 포스트하베스트 농약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잔류농약 투성이인 수입농산물이 당당히 수입될 것이다.



▲ 동경 긴좌의 집회행진

의료까지 붕괴될 염려가 있어

농업이나 먹을거리만이 아니고 금융이나 노동,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것도 TPP의 특징이다.

문제는 의료분야에서도 각종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금년 1월 일본의사회는 TPP로 「일본의 의료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일본의 TPP참가로 의료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은 「혼합진료의 대폭적인 완화», 「주식회사 등 영리기업에 의한 의료경영의 자유화」 그리고 「공적보험에 의한 의료의 대폭적인 제한」 등이다.

TPP를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공적보험이 없고, 4,700만명의 무보험자가 있는 나라이다. 「의료를 받고 싶으면 금액을 지불하라.»라는 미국의 기준이 일본에 적용된다면 세계에서 자랑하고 있는 장수를 보장하여온 국민 모두의 보험은 붕괴되고, 「돈이 없으면 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TPP참가를 어떻게 해서라도 저지하고자 사진과 같이 8월 27일에는 동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수상의 교대로 점점 위험성이 높아진 일본의 TPP참가를 국민의 힘으로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㉞



▲ 동경전력 본사 앞의 트랙터 시위

〈편집자 주 : 본 원고는 일본 신노미하다(しのみ畑) 가을호 69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임〉